

<반도체>

반도체 수출지향형 구조로 “순항”

국내 반도체산업은 90년부터 양산체제를 갖추고 대량 생산에 착수해 94년말 115억달러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95%가 대량생산체제로 수출되는 메모리형 반도체이지만 대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 책에 힘입어 DRAM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산구조는 메모리제품이 전체 생산액의 85%로써 세계 시장구조(93년)가 메모리 대 비메모리비율이 27대73인데 비해 매우 상반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산은 93년 52억 6300만달러였는데 국내 소비는 13%, 수출은 87%로서 수출지향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94년 예상실적은 72억3600만달러인데 국내 소비는 12%, 수출은 88%로 전망된다. 93년 우리나라의 수출국가를 보면, 미국 36.8%, 아시아 33.8%, 유럽 17.1%, 일본 12.8%이고 메모리 대 비메모리의 생산비율은 84.7대 15.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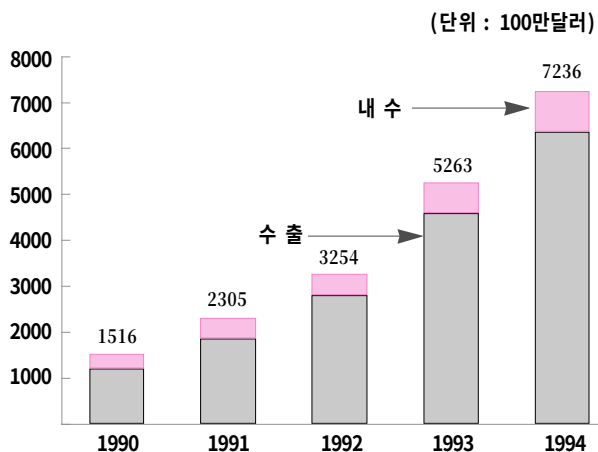
수출은 재료를 수입해 조립·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로 일본 39%, 미국 29%, 유럽 6%, 나머지는 기타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은 Analogue로 21.7%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Memory 19.4%, Logic 17.1%, Discrete 16.6%, Micro 16.4%로 나타났다.

94년 세계 반도체 판매 878억달러

세계 각국의 주요 반도체 생산기업들로 구성된 WSTS는 94년 세계 반도체시장 출하액이 878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1】 국내 반도체 매출현황



93년말 세계 반도체시장은 괄목할만 신장을 기록, 773억900만달러를 달성하여 반도체시장 태동기인 56년 1억7600만달러에 비해 439배의 시장확대를 이루었으며 연평균 17.9%의 성장을 해왔다.

93년 출하액은 92년대비 29.1% 증가한 773억달러로 호황을 구가했으며 94년에는 93년대비 113.6% 증가한 87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95년에는 출하액이 94년대비 55.3% 증가했으며 96년에는 11.8% 증가해 1034억달러의 시장을 형성, 최초로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의 BB비율(수주액/출하액)이 저하되는 등 반도체 수요의 선행지표상

우려되는 면도 있으나, 멀티미디어나 첨단통신 등 유망시장의 대두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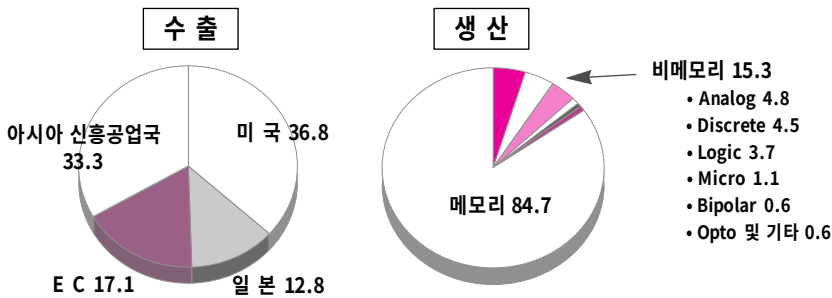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퍼스컴·멀티미디어·첨단통신 등에서 미국의 우위가 두드러져 아시아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93년에는 북미지역 247억달러(92년대비 34.5% 증가), 일본지역 237억달러(92년대비 22.3% 증가), 유럽지역 144억달러(92년대비 26.1% 증가), 아시아·태평양지역 143억달러(92년대비 35.6% 증가) 등으로 85년이후 처음으로 북미시장의 규모가 일본시장을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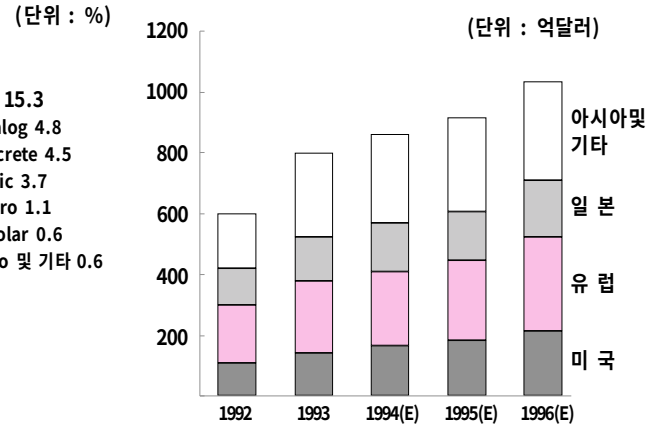
일본시장의 성장은 엔고로 인해 달러베이스로는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엔베이스로는 2조5900억 엔으로 5.9% 증가했다.

96년에는 북미 324억달러, 일본 310억달러, 유럽 184억달러, 아시아·태평양 214억달러로 전망돼 가정용 수요를 중심으로 일본시장에 비해 북미시장의 성장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2】 국내 반도체시장 현황(1993)



【그림3】 세계 지역별 반도체시장 규모



미국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미국 생산기업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시아·태평양시장이 유럽시장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여 이 시장의 공략이 각 제조기업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시장은 전반적인 경기회복 및 정보처리기기·Network Hardware시장의 성장회복에 따라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시장은 엔화강세 및 HDTV 등 신가전제품 도입 지연으로 인한 민생용 기기수요 부진으로 92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93년 하반기부터 회복돼 10%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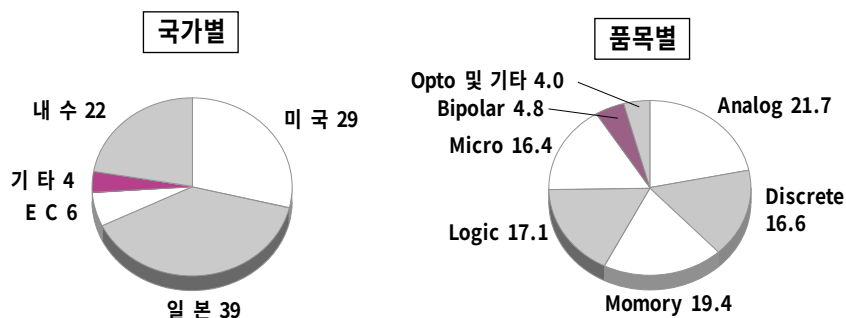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장은 세계 수출시장 회복, 중국시장 개방, 선진국의 생산기지 및 구매센터의 동남아로의 이전 및 내수확대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된다.

제품별 세계시장 동향은 93년에 개인 퍼스컴수요의 호조를 배경으로 마이크로센서(MPU)를 중심으로 한 Mos Micro가 196억달러(92년대비 337.2% 증가), DRAM을 중심으로한 Mos Memory가 221억달러 (92년 43.4% 증가)로 대폭적인 신장률을 기록했다.

94년에는 Mos Micro가 93년대비 1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Mos Memory는 23.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퍼스컴 출하는 신장이 어려워도 소프트 기능화에 의한 메모리의 수요는 당분간 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간 Mos Memory제품인 Mos Memory와 MPU는 각각 연평균 9.5%와 25.9%의 높은 시장확대가 이루어졌으며, 두 제품군이 93년 전체 반도체시장의 50%를 차지하여 반도체시장의 경기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림4】 국내 반도체 수입현상(1993)



Mos Memory와 Mos Micro는 93년말 각각 221억달러와 196억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전체시장의 27.5%와 24.7%를 각각 차지했으나 향후 5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97년에는 Mos Micro도 전체 반도체시장의 27.3%인 36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품목이 반도체시장의 58%를 차지하여 반도체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Mos Logic · Analogic 등 기타 품목들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Bipolar Digital 만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반도체시장은 세계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와 엔고의 영향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물량 급증과 내수증가로 94년 하반기와 95년 상반기에도 매출과 순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1994/11/1>